

광주서 온 **李** 작가들 누구?

이매리·이이남, 2015 베니스비엔날레서 호평



이매리 작 'Poetry Delivery'



이이남 작 'Re-born TV'

이이남, 2017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초대 이매리, 9월 일본 고베비엔날레서 '리브콜'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5베니스비엔날레'(5월9일~11월22일) 특별전에 초대받은 이매리 작가와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이남 작가는 2년 뒤 열리는 '2017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다시 또 참여하게 됐고, 이매리 작가는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일본 고베비엔날레에 초대받았다.

이이남 작가는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기타전시 중 하나로 열리고 있는 '개인적인 구조물'(Personal Structures)전에 참여했다. 이 전시는 네덜란드의 비영리재단인 글로발아트어퍼제잔(GAAF)이 팔라초 벰보(Palazzo Bembo)와 팔라초 모라(Palazzo Mora)에서 행사 때마다 개최하는 전시이다. 이 전시는 그동안 세계적인 작가들이 거쳐 가면서 베니스에서 열리는 유명한 전시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는 팍스타 고(故) 존 레논의 아내로 잘 알려진 행위에 술가 오노 요코, 조셉 코우스, 칼 안드레 등 50개국 90여 팀의 작가들이 참여했

다. 이이남 작가는 '빛이 되다'라는 소주제로 '자승자박(自繩自縛)', '초충도 사계II', 'Re-born TV' 등 그동안 빛 작업의 성과들을 보여줬다. 'Re-born TV'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고, '자승자박'은 인류가 만들어낸 사회 제도에 규범이 우리를 옴아때는 문제를 빛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작품이다.

특히 그는 GAAF의 창립자 중 한 명이자 '개인적인 구조물'의 기획자로부터 "동서양의 조화가 현대미술을 통해 작품에 잘 녹아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2017베니스비엔날레'의 같은 전시에 다시 한번 초대를 받게 됐다.

이이남 작가는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광주 미술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적 한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돌파구를 찾고, 세계무대에 우뚝 설 수 있는 저력을 갖춰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매리 작가는 중국 상하이 히말라야

미술관 주도하에 열린 '2015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시 '인본주의적 자연과 사회'(Humanistic Nature and Society·山水)전에 한국 작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특히 상하이히말라야미술관의 관장인 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 주최로 열린 '산수 정치' 주제의 식전행사에는 니콜라스 부리오, 후 한루 등 세계적인 기획자들이 참석했다.

이 전시에서 이매리 작가는 'Poetry Delivery'라는 작품을 통해 25분 분량의 2채널 비디오와 50개의 스피커 등 두 개의 미디어 매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했다.

이 작품은 시를 통해 문명과 산업화, 도시 개발이라는 욕망의 드라마를 시작 세례를 통해 전달했다. 작가는 "도시의

형성과정에서 권력과 자본의 밀착이 필연적으로 얽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시적 세례를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매리 작가는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하면서 신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다시 설정했다"며 "베니스비엔날레 무대에 서보니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광주 작가라는 메리트가 컸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그리스 국립 크레타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에 참여한 이매리 작가는 오는 11월 그리스 아테네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 계획이다. 또 오는 9월19일부터 열리는 고베 비엔날레에 공식 초청 받았다.

/김민은기자 mekim@kwangju.co.kr



'곱창전골' 노래에 침 넘어가네

일본 록그룹 콘서트...22일 광주 보헤미안

이름도 재미있는 일본 록그룹 '곱창전골'이 광주 공연을 갖는다. 22일 오후 8시 감성문화공간 보헤미안.

20년간 한국에서 활동해온 사토 유키에(보컬·베이스 기타)가 이끄는 '곱창전골'은 베이스 기타의 아카이 코지로, 드럼의 이토 코키로 구성된 3인조 밴드다. 지난 1999년 1집 '안녕하시므니까'를 발표하며 국내 음악계에 이름을 알렸고 한국의 인디 음악을 발굴하고 널리 알린 공로로 2010년 '제3회 홍대앞 문화예술상'도 수상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새 앨범 '메뉴판'에 실린 곡들을 중심으로 공연을

진행한다. '메뉴판'은 미식가인 사토 유키에가 한국 음식에 다양한 느낌을 담은 앨범으로 흥겹고 경쾌한 연주,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가 어우러졌다.

밴드 테마송인 '우리는 곱창전골이다', '새벽의 해장국', '노가리 트위스트', '묵은지', '비 오는 날은 빈대떡', '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 '돌나물로 시작되고 도무묵으로 끝난 사랑의 노래' 등을 만날 수 있다.

성인동요밴드 '지방자치 아이돌 AV'가 함께한다. 티켓 가격 현대 2만원, 예매 1만 5000원. 문의 062-416-100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드라마·공연 있는 라디오 '인문학' 공개방송

광주MBC 22일 혁신도시 aT서...이화경 강연·정세훈 공연

광주 MBC를 비롯, 춘천·전주 등 지역 MBC 8개사가 공동 기획한 라디오 프로그램 '살.신.성.인-살아서 신선이 되는 법, 인문학'이 청취자를 찾아간다.

현재의 세상을 신선처럼 즐기면서 살아가는 해법을 전하는 인생 수업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40부작 정규 프로그램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은 강연 일반도가 아닌, 드라마, 판소리, 민요, 랩 등이 결합된 새로운 구성이 특징이다.

광주 MBC는 지난해 현진건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이화경씨가 강연에 나서며 제주 MBC는 인문학자 고미숙씨를 초청했다. 또 춘천 MBC는 고려대 정창권 교수의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나카츠 카이키라 일본 나라여자대학 교수, 박맹수 원광대 교수의 '일본의 양심이 바라본 현대 일본의 역사 인식' 등의 강의를 준비했다.

이화경씨는 '슬픔이여 안녕'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학 작품을 통해 사랑의 본질 훑어보기, 그리스 비극 작품을 통한 인간



이화경 정세훈

조건을 성찰하기, 문학과 인문학을 통한 슬픔을 응시하기, 인문학을 통해 타인의 슬픔 성찰하기, 애도란 무엇인가 등 다섯 개의 주제가 준비돼 있다.

강의는 아나운서 김귀빈의 사회로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대강당에서 열리며 팸페라 가수 정세훈이 함께한다.

이날 녹음된 내용은 6월 1~5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방송되며 이후 타 지역에서 제작된 강연 내용이 청취자를 찾아간다. 문의 062-360-22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울 '종이로 만든 배' 광주평화연극제 우수상

최우수상 수상작 없어

18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막을 내린 제11회 광주평화연극제에서 서울 극단 '종이로 만든 배'의 '내 아이에게'(사진)가 2015 광주평화연극상 우수상을 수

상했다. 최우수상은 해당작이 없었다.

'내 아이에게'는 세월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간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세월호 사건을 들여다 본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한 이번 연극제에서는 개막 초청작인 극단 '청우'의 '내 이름은 강'을 비롯해 일본 '쓰무마키 악단'의 '죽고 싶은 놈들', 아트컴퍼니원의 '어서오세요, 우리집에' 등 초청작 4편과 극단 '시민'의 '기슴을 가린 꽃' 등 경연작 5편을 포함, 모두 9편이 연극팬들을 만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85회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2015. 5.22(금)~5.25(월)

남원시 광한루원 및 요천 일원 등

춘향선발대회 | 세기의 사랑' 공연예술제 | 사랑을 위한 길놀이 춤 경연 | 춘향국악대전

제85회 춘향제전위원회 Tel. 063) 620-5771~8 www.chunhyang.org